

FAQ

사업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

*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.

Q1 의료기기, 의약품 생산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▶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 제약바이오기업(원료의약품 포함)만 지원 가능합니다.

Q2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또는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,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, 또 지원이 가능한가요?

▶ 기 지원한 사업내용과 차별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 동일한 사업내용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
Q3 컨설팅 분야로 지원 시,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이 구성이 필수인데 아직 계약 전이어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?

▶ 계약 체결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.

Q4 시험 비용 혹은 기기 구입도 가능한가요?

▶ 시험 비용과 기기 구입은 국고보조금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, 필요 시 기업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Q5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?

▶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매칭비율을 1:1로 하여, 기업이 총 사업비(국고보조금+자기부담금)의 50%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.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업 계획서(V.소요예산) 작성 시에는 총 사업비 100백만 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(초과되는 금액은 별도 자기부담금으로 하며, 총 사업비에는 인정되지 않음).

※ (예) 국고보조금 5천만 원 신청 시, 기업부담금 5천만 원 기재

Q6 사업수행을 위한 계좌는 총 2개가 맞나요?

- ▶ 네, 맞습니다. e나라도움 예탁계좌(가상계좌이며 국고보조금 교부받는 계좌)와 자기부담금 계좌로 총 2개입니다. 예탁계좌는 사업신청 시 자기부담금 계좌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생성 됩니다.

Q7 사업신청 후, 선정평가는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나요?

- ▶ 네, 맞습니다. 선정평가는 사업 책임자가 사업계획에 대해 대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, 불가피한 경우 상황에 따라 화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Q8 출장비, 여비, 식비 등도 국고보조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?

- ▶ 해외 컨설턴트에 대한 식비, 여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(단, 인건비 집행 불가)

Q9 사업계획서 내에 소요예산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나요?

- ▶ 네,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예산 비목은 e나라도움 비목을 참고하여 작성해야하며 비목 변경 시 상위보조사업자(한국보건산업진흥원)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명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인건비 집행 불가